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

차 례

- 1.[보안인 기고] SK컴즈 개인정보 유출사건 첫 패소....류호찬(안진회계법인)
- 2.[보안인 기고] 전자 금융거래 인증방법 평가.....함손겸(보안인닷컴)
- 3.[보안인 화제의책] ‘보안으로 혁신하라’ 를 읽고.....전주현(보안인닷컴)
- 4.[보안인 이슈정리] 4월 보안이슈 정리.....이강원(보안인닷컴)

디자인: BK.Kim

편집: 전주현

발행: 전주현

• 심볼 마크에는 다음에서 제공한 [다음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http://info.daum.net/Daum/info/introduceOfCI.do)
 • 문서에는 네이버의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http://www.boanin.com>

발행인의 변

안녕하세요. 보안인닷컴 운영자 전주현입니다.

4월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법이 통과 됨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적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정보보호에 대한 업무는 또 여러부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라는 거대한 조직이 탄생한 만큼 새정부에 다시금 기대를 걸어 봅니다. IT관련 좋은 정책도 많이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한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보안인닷컴 회원이고 , 또한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 대학생 토론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손찬중군이 개인 사비로 보안인닷컴 커뮤니티 발전을 위하여 10만원을 후원 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을만큼 되돌려 줄 방법을 생각하다가 후원 해 주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매월 발행하는 것이지만 참여 인원도 적고 주말 시간 할애를 해야 하는 애로사항은 있지만 늘 기다려 주시는 회원분들이 있기에 힘들어도 참고 최선을 다해 봅니다. 이에 **[보안인]** e-매거진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배포되는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 은 국내외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보안인, 보안 교육센터, 보안기업, 보안제품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 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읽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 **[보안인]** 이 빛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번쯤 자신의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e-매거진 **[보안인]**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 참여 하시고 원고접수나 문의는 boanin@naver.com 이나 magazine@boanin.com 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관련하여 다양한 사이트에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Boan인**

보안/자격증, 정보보호자료공유 커뮤니티 보안인닷컴 : <http://www.boanin.com>

전주현 개인정보보호길라잡이 <http://www.privacy.pe.kr> <http://www.privacyguide.co.kr>

보안인닷컴 운영자 엔시스올림

[보안인 토막공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은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 보안에 대한 이야기, 자격증 취득후기, 면접등 다양하게 보내 주시면 더 많은 풍성한 읽을꺼리를 제공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boanin@naver.com 입니다. -보안인닷컴 편집자 주

[보안사 기고] SK컴즈 개인정보유출 사건 첫 패소 (딜로이드 안진희계법인 류호찬)

<http://www.hochanryu.com>

SK컴즈 개인정보유출 사건 첫 패소



SK컴즈의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는 20여개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은 2012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졌는데, SK컴즈는 법에서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SK컴즈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개인당 2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SK컴즈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SK컴즈의 항소를 통한 최종 판결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번 판결은 외부자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개인정보유출관련 집단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옥션, KT, GS칼텍스, 넥슨, 현대캐피탈 등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개요와 기업이 구축, 사용하는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과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유출만으로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각종 솔루션구축등 기술적조치를 다했는데 해킹으로 뚫렸다면 뒤로 한발빠져있던 기업들에게 긴장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SK컴즈가 느슨한 관리 실태로 인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해킹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판결 내리고 지적한 과실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번째로는 침입탐지시스템(DLP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운영상의 경고 발생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트래픽이 미미하게 발생하는 새벽시간에 내부망에서 총3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총 10G의 크기로 유출되었는데도 침입탐지시스템에서는 이상 징후로 감지하지 못해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둘째,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여 해킹사건의 도구로 이용된부분으로 SK컴즈와 같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기업용 알집이 아닌 비인가 소프트웨어로 분류되어 있는 공개용 알집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이스트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서 나아가 SK컴즈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한층 크게 한 책임을 물

었습니다.

셋째, DB 관리자가 업무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점으로 소송을 건 김경환변호사 사무실의 SK컴즈 로그 분석 결과 새로 나온 증거로써, SK컴즈의 DB 관리자가 DB 서버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고, 일정 시간 이상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는 아이들 타임(idle time)이나 접속 가능한 최대시간인 커넥트 타임(connect time)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로그인인 된 상태로 계속 남아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해커가 OTP 번호를 새로 받지 않고도 DB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아, SK컴즈의 직원이 업무수행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과실과 SK컴즈가 아이들 타임이나 커넥트 타임을 적절히 설정하지 않은 과실이 결합하여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판결에서는 SK컴즈가 법에서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노력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유출 책임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로그분석 및 과실파악을 통해 보호조치 수립 미흡이란 증거를 가지고 책임 여부를 따져 SK컴즈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일어난 3.20 대란도 물론 개인정보 측면의 피해는 없었다고 판단되지만, 기업이 외부자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었어도 책임을 묻는 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기업에서는 정보보호를 기업의 이미지 하락뿐만 아니라, 존폐위기 측면에서 좀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사 기고]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 평가 (보안인닷컴 기자단 합손검)

1. 인증방법 평가에 대한 배경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기존의 응용프로그램 등을 웹과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하는 IE(Internet Explorer)기반 기술이다. 2010년 초에 청와대 호민관실은 스마트폰에는 액티브-X 설치가 불가능해 이를 기반으로 한 공인인증서 사용이 전자금융거래에 불편을 줄 수 있다며 공인인증서 외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공인인증서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실, 방통위,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2010년 5월 30일에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터넷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가이드라인’에 합의했고 금감원 아래서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2. 인증방법 평가체계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의 유형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인증방법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다.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유형, 거래한도 등에 따른 기술적 요건들을 선택적으로 고려하여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며 해당 기술적 요건들은 아래와 같다.

- 1) 이용자 인증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 제공 시 정당한 이용자 여부를 식별 및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
- 2) 서버 인증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서버(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경우 정당한 금융기관 등의 여부를 이용자가 식별 및 인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통신채널의 암호화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서버간의 전자금융거래내역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를 통한 비밀성과 무결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4) 거래내역의 무결성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내역의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5) 거래내역의 부인방지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당한 전자금융거래 사실을 이용자 및 금융기관이 부인할 수 없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예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인증, 서버인증 및 통신채널 암호화의 조건을 갖춘 경우, 거래한도를 정하여 인증방법 평가를 받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인증방법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인된 기관의 검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에 있어서 인증방법에 관한 부분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인증방법 평가현황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0년 1회, 2011년 2회, 2012 2회 총 5회의 인증방법 평가위원회의를 가졌는데 그 중 2012년 4월에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시스템보증 총 4곳의 평가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첫 인증업체로 전자지불 전문업체 페이게이트(PayGate)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페이게이트(PayGate)의 인증방법은 일부 기술적 미비점을 지적받아 보안등급 '나군'을 받고 30만원 미만 거래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었다. 실질적으로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마련된 후 3년 간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인증방법이 나타나지 못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도록 한다고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부인했다.

4. 기술평가기준에 대한 분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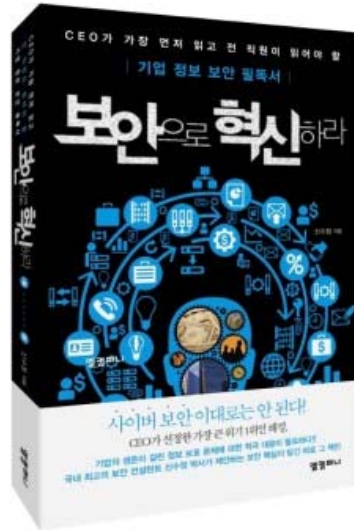
금융거래에서는 보안성이 매우 중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이용자 인증, 서버 인증, 통신채널의 암호화, 거래내역의 무결성, 거래내역의 부인방지의 기술적 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금액이 적은 경우에만 한하여 일부 기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증방법들을 이용하여 거래가 가능하게 하였으나 고액의 경우에는 모든 기술적 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언론 등에서는 보수적인 평가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철저한 검증을 하는 지금의 평가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사실 현재의 공인인증서는 인증방법의 기술적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문제는 웹 호환성 부족과 개인 키 관리 문제 등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호환성을 만족시키고 개인 키 관리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보안성을 가지는 인증방법이 나와야한다. 물론 쉽게 나오기 힘들겠지만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인증방법이나 대체할 수 있을만한 새로운 인증방법을 제시해야하며 인증방법평가위원회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이를 적용해야한다.

5. 참고문헌

- [1] 인터넷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3월.
- [2]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 안전성 가이드라인 확정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5월.
- [3]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정성 기술평가기준 확정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11년 2월.
- [4] "안철수에게 묻는다, 짜장면만 먹어야 하나", 오마이뉴스, 2012년 6월
- [5] 해킹 표적된 공인인증서, "계속 써도 될까", 머니투데이, 2013년 2월.
- [6] 전자금융 신 인증기술 연구보고서, 금융보안연구원, 2011년 3월. - SKBT 

[보안사 화제의 책] ‘보안으로 혁신하라’을 읽고 (보안인닷컴 전주현)



▲ [보안으로 혁신하라, 엘컴퍼니]

※ 본 서평은 개인블로그에 포스팅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편집자주

대한민국 메이저 정보보호업체 대표이신 신수정 대표님께서 <보안으로 혁신하라>는 보안관련 책을 출간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읽어 보았는데요. 그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블로그에 한번 정리 해 보겠습니다.

비보안 분야에서는 보안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야가 아닌 분야는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보안분야 있는 사람들에게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자꾸 이야기 합니다. 이 말에는 한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혹은 저는 자신의 IT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요. 상대방에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보안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을 저는 커뮤니티 운영을 통하여 십수년간 하였고, 그때마다 생각해 낸것이 바로 '보안에 대중화' 입니다. 누군가 유명하신 분이 (교수님이나 정보보호기업인, 보안전문가) 나서서 보안에 대한 인식제고와 중요성을 쉽게 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신대표님께서 이에 딱 맞는 책을 출간 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대표님은 과거부터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보안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공유하고 계셔서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 책도 쉽고 깔끔하게 비 보안인들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나 중요성을 일깨울수 있도록 66가지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느낀 소감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 해 보겠습니다.

- 접근성이 좋다. - 컨설팅을 많이 하신 컨설턴트 경험과 학교 강단에서 후배 양성을 하고 있어 어렵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풀어 써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누구나 읽어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 해법을 제시하였다. - 바람직하지 않는 내용만 나열 한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을 녹여 내었습니다. 특히 첫째,둘째, 셋째 형태로 많이 썼더군요만요.. 이는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의 분류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저도 책 쓰면 이런 방법을 활용해야 겠습니다.
- 브랜드, 맨파워를 느꼈다. - 아마도 현직에 있는 엔지니어나 실무진이 집필을 하였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지적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현재 한 기업의 경영자이며 또한 교수이며 과거에는 유명한 컨설턴트였던 만큼 신뢰를 기반으로한 맨파워를 느꼈습니다.
-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히 읽었다. - 보안은 우선 대중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늘 같구 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쉽지 않는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보안인들에 대한 니즈를 읽고 전문성과 브랜딩 이미지로 타케팅 하였습니다. 비슷한 예로 법륜스님이 팹케스팅이나 이런 곳에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살아가는 이야기, 부부 이야기, 자녀고민등 상담을 하면서 해안을 제시해 줍니다. 어려운 기술적인 보안이야기만 하였다면 또 관련분야에서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 어려운 것은 쉽게 설명할수 있는 것 - 어려운 것을 쉽게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 해 줄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공과 그 분야에 대한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독서를 하고 그리고 보안기술과 접목하여 어려운 내용을 쉽게, 보안초보자, 그리고 경영자등도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할수 있도록 방향성을 풀어내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고 대중화입니다.

한 기업에 경영자라면 늘 의사결정과 임직원들 관리에 많은 시간이 할애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추어 지속경영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고민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시간을 할애하여 이렇게 멋진 책을 출간 해 주신 신수정 대표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보안인식을 조금이나마 올리는데 일조하지 않았는가를 감히 자평해 봅니다. 2편도 쓰신다고 하니 기대하겠습니다.

@엔시스 <보안으로 혁신하라> 책을 읽고. 2013.05.09

[보안사 강좌] 4월 보안 이슈사항 정리 (보안인닷컴 기자단 이강원)

※ 4월 한달간 보안 이슈사항에 대하여 이강원님이 정리 해 주셨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기 좋도록 편집해 볼 예정입니다.

2013. 4. 3

안랩, APT 공격 대응 솔루션 한달간 무상 지원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4030100035040001699&cDateYear=2013&cDateMonth=04&cDateDay=03

2013. 4. 3

과수닷컴 · 정보시스템감리협회와 `시큐어코딩 활성화` 업무 협약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40302019960785006

체크포인트, 3.20 주범 `다크서울` 지목...통신 및 금융 사업 강화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security/2744925_1477.html

국제해킹방어대회...세계 최고 수준 해커들 불꽃 대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2&aid=0000007691>

2013. 4. 4

정부, '하테스' 1000명 키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40310204960315&outlink=1>

어나니머스, “북한 독재정권 쓸어버리겠다” 선전포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8897>

[4월 국회 쟁점] 여야, 국정원 ‘컨트롤타워’ 될 ‘사이버위기관리법’ 두고 격론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13270>

2013. 4. 5

미래부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체계 강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5071837>

국내 모바일 보안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스피싱 주의!

<http://www.boanews.com/media/view.asp?idx=35542>

2013. 4. 6

어나니머스, 우리민족끼리 6,216명 명단 추가 공개

<http://www.boanews.com/media/view.asp?idx=35554&page=14&kind=1&search=title&find=>

2013. 4. 7

‘일간베스트저장소’ DDoS 공격...사이트 접속 장애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5573&page=13&kind=1&search=title&find=>

2013. 4. 8

윈도XP 종료 D-1년... MS, “OS 업데이트 권장” / 윈도우 XP 서비스, 2014년 4월8일 지원 종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408000378&md=20130411005112_AP

어나니머스 “6.25일에 北 내부 인터넷망 공격”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39896&&source=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yt.top&where=nexearch&ie=utf8&query=6.25%20EC%96%B4%EB%82%98%EB%8B%88%EB%A8%B8%EC%8A%A4&x=-595&y=-51

2013. 4. 9

“3.20 전용백신 위장 악성코드 주의보”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4090100103490005450&cDateYear=2013&cDateMonth=04&cDateDay=09

안카메라 측 “프로그램 특성상 피해 규모 적어”...서버 전면 교체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5580&page=12&kind=1&search=title&find=>

한국트렌드마이크로, ‘CLOUDSEC 2013’ 개최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5593&page=12&kind=1&search=title&find=>

2013. 4. 10

3.20사이버테러 중간 조사결과 발표

<http://news1.kr/photos/430685>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5649&kind=1> 종합

2013. 4. 11

국방부 주도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 개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16534>

2013. 4. 12

안랩, “3.20 사이버 테러에 안랩 백신 이용은 사실무근”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304/e20130412173129117720.htm>

2013. 4. 19

'보안 허술' 공인인증서 해커 먹잇감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14&aid=0000235967>

2013. 4. 25

보안 개념 없는 '금융앱스토어'...안정성 논란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5/2013042590278.html

2013. 4. 27

OWASP Korea Day 2013' 워크숍, 오는 27일 개최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5841&page=1&kind=1&search=title&find=>

그 외 디지털보이스언더그라운드(DigitalBoys UG, 이하 디지털보이스)는 하나은행을 어나니머스는 외환은행을 해킹했다는 루머가 나온 가운데 모두 허위정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랩, APT 공격 대응 솔루션 한달간 무상 지원

3. 20 사이버테러와 관련 홍역을 치른 안랩이 고객사에 지능형지속공격(APT) 대응 솔루션인 ‘트러스와치’와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한달간 무상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3.20 APT 공격'에 불안해하는 고객은 물론, 이번 사태로 국내에서도 심각성이 대두된 APT 공격에 대한 기업의 사전 방지 대책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안랩은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면 이달 말까지 각사별 안랩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된다

파수닷컴 · 정보시스템감리협회와 `시큐어코딩 활성화` 업무 협약

이번 협약으로 감리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큐어코딩 진단도구 및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감리 업계에서 시큐어코딩을 활성화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크포인트, 3.20 주범 `다크서울` 지목...통신 및 금융 사업 강화

이스라엘 보안업체 체크포인트가 올해 국내 통신 및 금융 분야를 중점 공략한다. 특히 금융은 3·20 사이버 공격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회사 전체 매출규모에서는 30~40% 성장 달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 지사장은 “내부 클라우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3·20 사이버테러의 원인이 `다크서울(Dark Seoul)`의 변종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코드는 원격조정과 제어가 가능한 게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체크포인트코리아는 이날 안티봇 솔루션, 스렛클라우드, 스렛 에디션 등 신제품을 소개했다. 자사의 보안제품들이 이러한 공격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해킹방어대회...세계 최고 수준 해커들 불꽃 대결

공격 목표를 전달받고 신속히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는다. 보안성이 높은 시스템을 뚫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뚫는 방법, 해킹 기술을 알아야 막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해킹 피해신고는 전년 대비 70% 가까이 늘었지만, 해킹 등 사이버테러 범죄의 발생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예년 보다 10% 가까이 줄었다. 그만큼 범죄 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다.

정부, '하데스' 1000명 키운다

정부가 사이버테러 세력과 맞서 싸울 화이트 해커(White Hacker; 최고급 보안전문가)를 1000명 이상 규모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인기 해킹 드라마 '유령'의 주인공 '하데스'같은 천재 해커들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평상시는 물론 사이버테러 발발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인재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KISA) 및 국가정보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국가보안기술연구원 등 정부기관 혹은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보안 관련 종사자 수는 수천명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 해킹 대응력을 갖춘 실무형 보안전문가 인력은 고작 200~300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일간베스트저장소' DDoS 공격...사이트 접속 장애

일베는 7일 23시 48분경 트위터(@ilbegarage)를 통해 “잠시 전부터 DDoS 공격으로 장애를 겪고 있다. 빠른 정상화를 위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 장애는 8일 새벽 5시까지 5시간 가량 DDoS 공격으로 마비되었고 8일 오전에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었으나 이내 다시 접속이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오후 3시30분께부터 접속이 재개됐다

어나니머스, “북한 독재정권 끌어버리겠다” 선전포고

어나니머스는 지난 2일 인터넷을 통해 “고려항공 내나라 우리민족끼리 등 5개 북한사이트를 대상으로 수

차례에 걸쳐 해킹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어나니머스는 이번 해킹을 통해 북한에 ‘핵무기 개발 중단’ ‘김정은의 사퇴’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도입’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 등을 요구했다. “북한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회원계정 1만5000명 전원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북한사이트의 모든 자료를 지워버리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여야, 국정원 ‘컨트롤타워’ 뒤편 ‘사이버위기관리법’ 두고 격론

이 법안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 안보 위기를 관리하는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사이버 경보 발령권도 갖는다. 위기 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한 지휘권도 부여 된다. 논란의 핵심은 국정원이 사이버테러의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미래부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체계 강화"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민간 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를 열고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방송·통신·의료·교통 등 민간 분야 신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발굴과 지정 확대
- 삼성SDS, LG CNS 등 IT서비스업체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정보보호 실태조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모바일 보안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스미싱 주의!

한국 맞춤형 안드로이드 악성앱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격자들은 마치 정상적인 보안앱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속임수 수법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V3모바일백신’이라는 이름과 V3 Lite 제품의 이미지로 위장하고 있고 악성앱 내부에는 다음과 같이 ‘ic_launcher.png’ 이미지 리소스를 포함시켜 마치 V3 Lite 처럼 보이도록 사용하고 있으며, 아이콘을 실행하면 정상적인 안랩 모바일 사이트로 연결시켜 사용자로 하여 정상적인 앱으로 보이도록 스스로를 위장하게 된다.

어나니머스, 우리민족끼리 6,216명 명단 추가 공개

어나니머스의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 공개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3일(현지시간 기준) 1차 공개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이트 가입자가 입력했던 아이디, 성별,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비밀번호 등 정보가 포함돼 있다.

어나니머스는 트위터를 통해 “이제 2차 명단까지 공개했으니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사람들의 정보는 다 공개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윈도XP 종료 D-1년... MS, “OS 업데이트 권장”

한국MS는 8일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미디어브리핑을 갖고 “내년 4월 8일 이후부터 윈도XP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포함한 어떤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MS 측은 이 날 브리핑에서 “금융 서비스,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등 민감하고 중요한 서비스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잡한 환경에서 11년 된 윈도 XP로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PC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원 종료 시점 이전에 상위 버전의 윈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어나니머스 “6.25일에 北 내부 인터넷망 공격”

어나니머스는 북한 내부 인터넷망인 '광명'에 들어가기 위해 '닌자 게이트웨이'라는 비밀통로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해킹된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처럼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망과 철저하게 폐쇄된 내부망 '광명' 사이에 연결된 통로를 뚫고 들어가 북한 인터넷을 장악하겠다는 것. 이들은 만약 공격이 성공하면 북한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 역시 외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3.20 전용백신 위장 악성코드 주의보”

KISA에서 배포한 전용백신 안내 메일로 위장돼 유포된 이번 악성코드는 지능형지속공격(APT) 형태로, 3.20 사이버테러의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불안해하는 사용자 심리를 자극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메일을 회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카메라, 해킹 대응조치에 적극 나서

안카메라 구성과일에 악성코드가 심어졌다고 밝힌 회사 측은 프로그램 최신버전 업데이트 실행시 악성코드가 PC에 배포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용자의 피해 규모가 적었다는 것. 안카메라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에 이번 사건을 접수해 정밀 점검을 받을 예정”이며 “피해자 중 안랩, 하우리 백신 사용자는 자동 치료되도록 안랩 측과 하우리 측에 요청해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트렌드마이크로, ‘CLOUDSEC 2013’ 개최

2011년부터 3년째 아시아 각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번 컨퍼런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보안업체가 참여해 자사의 사례를 공유하고 클라우드 보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공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3.20사이버테러 중간 조사결과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사이버테러가 악성코드 76종 중 30종 이상, 공격 경유지 49곳 중 22곳이 과거 북한이 썼던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주도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 개최

정부는 11일 국정원장 주재로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15개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 안전전략회의’를 열고 그동안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마련해온 대책을 점검했다.

안랩, “3.20 사이버 테러에 안랩 백신 이용은 사실무근”

안랩은 “방송·금융 6개 업체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각각 다른 경로로 이루어졌고 6개 업체가 모두 안랩의 백신 프로그램을 쓰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에 사용된 ‘북한 해커들이 이용한 침투 통로는 백신 프로그램’이란 표현은 안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랩은 자사의 백신 프로그램이 이번 공격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랩은 “농협의 악성코드 유포에 활용된 APC(자산 및 중앙관리서버)는 V3와 같은 백신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보안 허술’ 공인인증서 해커 먹잇감으로

공인인증서를 쓰려면 '액티브 X'라는 운용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악성 코드가 침입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 은행에서 고객도 모르게 통장의 5천 만 원이 무단 인출됐고, 2월에는 공인인증서 7백여 개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일괄 폐기됐다.

보안 개념 없는 '금융앱스토어'...안정성 논란

금융결제원에서 이틀전 내놓은 금융앱스토어. 시중은행의 금융앱을 한 곳에 모아 위·변조 금융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개설했으나, 구글의 안드로이드폰으로 앱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보안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안정성에 논란이 일어났다.

‘OWASP Korea Day 2013’ 워크숍, 오는 27일 개최

국제 웹 보안을 주도하는 비영리단체인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의 코리아 챕터가 국내외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응용 개발자 등의 웹 보안 능력 향상을 위한 ‘OWASP Korea Day 2013’ 워크숍을 오는 27일 서울 삼성동 JPLUS TOWER에서 개최한다.

그 외 디지털보이스언더그라운드(DigitalBoys UG, 이하 디지털보이스)는 하나은행을 어나니머스는 외환은행을 해킹했다는 루머가 나온 가운데 모두 허위정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BoaN人**

[보안인 지면을 빌려 드립니다]

이 코너는 구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소소한 일상적인 이야기나 공부이야기, 세미나후기, 멘토링, 취업기, 자격증 취득기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공간입니다. 축하, 승진, 입학, 졸업사연도 받습니다. 가급적 편집하지 않고 리얼하게 실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boanin@naver.com 으로 보내 주세요.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 후원안내

매월 무료로 발행되는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은 e-매거진 [보안인]에 후원자 명단을 공개해 드립니다.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은행 204-028530-02-201 예금주 : 전주현

2013.05월 기부해 주신분

손찬중님 10만원

* 기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보안인닷컴 e-매거진 참여 하신 분

지금까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에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인터뷰에 참여 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참여 하신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호부터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간략한 글 소개를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문](#)에 각 호별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1. 창간호: “wi-fi 무선랜 보안현실 및 사례” - 변동삼
 “안티포렌식 기술의 소개 및 대응기술” - 김석
 “보안의 핵심적 요소이자 취약요소 사람” - 신동일
 “정보보호 기술병의 SIS 1급 합격수기” - 김무현
 “부평스(부산평일스터디)를 소개합니다.” - 김건오
 “모의해킹 고수 어떻게 준비할까” - 조정원
 “중소기업 자가진단압 소개” - 김건오
 “똑똑한 스마트폰 안전하게 사용하기” - 강정웅
 “너무나 갖고 싶었던 명함” - 이재호
 “The 17Th Network Security Workshop-korea 후기 - 이기성
 [축하의말] 보안인식제고는 진정한 정보보호전문가의 첫걸음 - 강용남
 [축하의말] 개인정보보호 최대의 적은 무관심 - 김종구

2. 제2호 : “보안의 시작은 관리체계수립하여 SLC만들어야“ -전주현
 “왜 우리는 위협을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가? -문승주
 “ISMS을 통한 기업보안구축사례 - 김용완
 “모의해킹 컨설턴트가 되려면-(2) - 조정원

3. 제3호: “보안 업무의 마지막 단계 - 정보기기의 폐기업무에 대하여” -김재우
 “모의해킹 컨설턴트가 되려면(3) - 조정원
 “소상공인/준용사업자 사업시, 개인정보보호법 어떻게 대처할까?” -전주현
 “2011 KAIST 사이버 워크샵 후기 - 이기성
 “윈도우7 보안의 핵, 사용자 계정(UAC) - 박광수
 “[책리뷰] 내부직원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정보 유출을 막아라 - 이기호

4. 제4호: “KUCIS 하계 워크숍 -김주영
 “APT 해킹에 대하여” -유인재
 “정보보호 동아리 창설 사례” - 이기성
 “제2회 대학생 금융보안캠프” - 임효식

보안인닷컴 e-매거진 참여 하신 분

지금까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에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인터뷰에 참여 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참여 하신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호부터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간략한 글 소개를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보 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문](#)에 각 호별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5. 제5호: “BS10012에서 이야기 하는 PIMS” - 박준용
 “스마트보안과 테스트의 중요성” - 유정훈
 “개인정보보호법 컴플라이언스냐? 시큐리티냐?” - 전주현
6. 제6호 : “국내 정보보호 자격증 발전방안에 대한 소고” -박준용
 [인터뷰] 한재호 (주)에이쓰리시큐리티 대표이사 -유인재
 [인터뷰] 김휘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유인재
 [특별기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애로사항 -전주현
7. 제7호: “[새해특집-1] 정보보호학과 탐방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김승주
 “[새해특집-2] 정보보호업체 탐방 - 안랩(구 안철수연구소) -전주현
 “BackTrack이란? -조정원
 “해킹대회에 대한 소개 - 유인재
8. 제8호: “BackTrack 안드로이드 설치 -조정원,전영재
 “디지털포렌식분석-SANS 문제풀이 - 이준형
 “해킹보안동아리 창설이야기 -국민대학교 - 유인재
 “대학교 4학년 이후의 삶 - 임효재
 “IT특화병, 정보보호기술병 -김주영
9. 제9호: “한국IBM 보안사업부 출범과 그 의의” - 박형근
 “WireLess Security에 대하여” - 권오훈
 “A3시큐리티 세미나 후기” - 김주영
 “[인터뷰] A3아카데미 ” 허아람
 “[인터뷰] 수원대 정보보호동아리 ”FLAG” - 유인재

보안인닷컴 e-매거진 참여 하신 분

지금까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에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인터뷰에 참여 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참여 하신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호부터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간략한 글 소개를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문](#)에 각 호별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10. 제10호: [기고] "주말 Malware Launch Detected!" - 전상훈
 [번역] "모바일 데이터 암호기술" - 임효식
 "CentOS 5.5에서 하드디스크 추가하기" - 전주현
 "모의해킹 방법론" - 조정원
 "신종 MBR파괴 악성코드 분석" - 이규형
11. 제11호 : [기고] "IT기술사 도전해보자" -이이진
 [기고] "해킹,악성코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신원
 [번역] "Security, Privacy and Policy Roundup" -권오훈
 [인터뷰] "기사가 현실을 바꿀때 보람있어요" -장윤정
12. 제12호: [기고] "개인정보보호법 본격시행으로 다시본 국민식별체계" - 이형효
 [칼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과 의미"-전주현
 [매뉴얼] Snort IDS 윈도우버전 설치방법" -박현철
 [화제의 책, 저자 인터뷰] "안철수, He Story" - 박근우
 [기고] "네이트 해킹 사건 승소판결의 의미" - 유능종
13. 제13호: [기고] "보안컨설팅을 지망하는 분들에게" - 신수정
 [칼럼] "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에 거는기대 -전주현
 [인터뷰] "정보보호전문가, 장인정신 가져야" - 최운호
 [인터뷰] "보안의 다양성 보도와 취재원 보도가 최우선" - 길민권
 [기고] 드라마 '유령'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 -유인재
14. 제14호: [기고] "KAIST 악성코드 분석 프로세스" - 임효식
 [인터뷰] "서비스 이용시 프라이버시 사전침해 제거가 최우선" - 이진규
 [인터뷰] "IT경쟁력, 글로벌로 눈을 돌려라 - 이택동
 [인터뷰] "보안책임자 IT역량과 비즈니스 역량 함께 갖추어야" - 차인환

보안인닷컴 e-매거진 참여 하신 분

지금까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에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인터뷰에 참여 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참여 하신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호부터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간략한 글 소개를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문](#)에 각 호별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15. 제15호: [기고]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가 풀어야할 숙제 3가지" - 전주현

[인터뷰] 보안인터뷰 한국인터넷진흥원 - 박해룡팀장

[인터뷰]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기업탐방] 정보보호인식주식회사 - 문승주대표

[교유센터] 부산글로벌IT 교육센터 - 유종우 선임

16. 제16호 : [기고] 법과 정책으로 바라본 개인정보보호 현주소 -전주현

[인터뷰] 금융보안연구원 -성재모 본부장

[인터뷰] 개인정보보호협회 -전진환박사

[기술문서] " 아래한글 악성코드 분석 " -안랩 침해대응센터

17. 제17호 : [인터뷰] 테크엔로우 -구태연 변호사

[인터뷰] 중앙대학교 김정덕 교수

[지면임대] 서울 상경기 - 이현우

18. 제18호 : [특별기고] 훌륭한 인증심사원이 되려면 -전주현 보안인닷컴 운영자

[취재기] 지역별 정보보호교육센터 제3권역 부산대학교편

19. 제19호 : [인터뷰]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인식해야 -고승철 수원대학교 교수

[강좌] 쉽게 배우는 암호학이야기 -김지현 부산대 박사과정

[기고] 개인정보보호법 8가지 분석 -이재욱 필라아יתי 부사장

[생각] 보안전문가에 대한 생각 - 최재규 인하공전 겸임교수

[서평] 제로데이 - 유인재 안랩

참여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운영자 올림

보안인닷컴 e-매거진 참여 하신 분

지금까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에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인터뷰에 참여 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참여 하신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호부터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간략한 글 소개를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문](#)에 각 호별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 20. 제20호: [강좌] "쉽게 배우는 암호학 이야기" - 김지현
 - [기고] 미디어 콘텐츠 소재로서의 보안 - 임효식
 - [기고] 사용자 관점에서의 윈도우 8 보안 - 박광수
 - [기고]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첫 시험 시행 -전주현

- 21. 제21호: [인터뷰]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 이경현
 - [기고] 3.20사고를 보면서 느낀 10가지 - 전주현
 - [기고] "쉽게 배우는 암호학 이야기" - 김지현

- 22. 제22호: [기고] SK컴즈 개인정보유출사건 첫 패소 - 류호찬
 - [기고]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 평가 - 함손겸
 - [기고] 4월 보안이슈사항 정리 - 이강원

참여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운영자 올림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 원고 모집

보안인닷컴에서 매월 무료로 발행하는 e-매거진 [보안인]에서는 보안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실 분들은 magazine@boanin.com 이나 boanin@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실어 드리겠습니다.

보안은 실천이고 문화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보내 주실 원고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보안이슈 및 동향 - 기술적 분석
- 우리 회사 보안 실천 사례
- 나의 보안전문가 도전기
- 내가 공부한 보안 이론
- 보안 솔루션 소개
- 보안관련 책 소개 및 후기
-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분석
- 해외 보안소식
- 보안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석 후기
- 기타 보안전문가 인터뷰
- 회원들의 소소한 일상

이외에도 보안에 관련된 여러 아이디어 및 관련 글 보여 주셔도 됩니다. 원고 마감기간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매월 초에 무료로 배포되는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인닷컴 회원분들과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magazine@boanin.com